

은혜는 율법에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엉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유행에서 벗어났으니, 이려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은 살고 죽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과 죽음에서 거짓 신앙과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분깃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스캇 솔즈의 [선 밖의 예수] 중에서

허브 카엔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저널리스트가 쓴 글.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다시 태어나면서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캐서린 화이트혼이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글.

“거듭난 사람들은 왜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까?”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인터뷰에서.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면 대개 사람들은 사랑, 연민, 은혜 같은 단어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개는 무엇인가에 ‘반대하는’ 사람에 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가 주로 이것으로 알려진다면 수많은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겁니다. . .

크리스천들은 평판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완고하고 비판적인 부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오늘날의 기독교)이 우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풍기게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메시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올바른 죽음과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무거움의 정체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은혜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가 '율법에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닐지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남편은 항상 아내가 엉덩이가 뚱뚱하다고 해서 "당신은 엉뚱한 여자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화가 나서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가리만 크다는 의미로 남편을 향해, "당신은 특공대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지지고 볶는 '콩가루 집안'이 되곤 하였습니다.

반면에 항상 격려를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성적을 받아 왔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받아보니, 한과목만 '양이고 나머지 모든 성적이 '가'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성적표를 받아 본 보통의 부모님 같으면 노발대발, 야단법석을 합니다. "넌 누구를 훔아서 그러니? 머리만 크면 다니, 공부도 못하면서"라고 야단을 쳤을 텐데, 그런데 성적표를 든 아버지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애야, 한과목만 공부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이런 판단과 비난 혹은 격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율법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하여 선과 악을 나누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이런 비난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자신도 망가뜨리며 정죄의 감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까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적법하게 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행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을 염을 육체가 없나니 유행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적용될 때, 우리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드러난 죄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이빨 사이에 고추 가루가 낀 것도, 얼굴에 음식물 자국으로 얼룩진 것을 모르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묻은 얼룩과 더러움은 거울을 보고 빼내면 되는데, 문제는 죄를 깨달아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오히려 죄의 권세아래 놓이게 되고, 그 죄에 매여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고민 때문에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고 있고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율법에서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사도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여인이 결혼하여 사는데, 남편이 거의 폭군 수준입니다. 아니 거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잘못, 아니 부족한 면이 보일 때마다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힘이 있어 이 여인이 남편에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적대로 고쳐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제는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칙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아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생기를 잃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태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절에 '율법나무' 즉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에게서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분별하게 된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보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내를 감싸기 보다는 "그녀 때문에"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존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녀가 한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정당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들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정죄감과 죄책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변의 존재가 사랑과 감사의 대상이 아닌, 정죄의 대상이 되는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함께 하는 것이 고통이 됩니다. 신기하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불행해 지다니 말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불행한 부부의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라면, 아내가 바라는 것은 남편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 남자를 생각하거나 같이 한다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일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려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읊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읊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법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 조문'(lists)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엄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소위 성공적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천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경건한 삶' '자기희생' '말씀공부' '규칙적인 기도 생활' '교회에서의 봉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크리스천의 표징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기쁨을 상실하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중적인 삶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삶으로 전락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크리스천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목격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오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직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우리 삶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율법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므로 인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

“목사님! 제가 아이들에게 잘 해주려고, 이해해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제 남편에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 .”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노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교회의 청년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중 87%의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범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반면, 술과 담배가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있어서 83%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무언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행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책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는데, 믿는 자의 생활이 점점 고달프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율법에서 죽으면. . .

이제 오늘 말씀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율법아래 사는 삶이 있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있습니다.

20억 장학생의 어머니로 유명한 황경애 사모가 쓴 [엄마 울지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달에 와서 간증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과 간증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 셋이 다 명문대학에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 남편이 도망가 버려 아버지를 모르가 살아야 했던 아이들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보다 꼭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기에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은 큰 딸 그레이스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평평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한 백인 아이가 딸을 놀린 것입니다. 눈이 찢어진 동양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났습니다.

"당신네 할아버지가 좀 일찍 이민을 왔을 뿐인데 왜 유세를 하느냐, 당신 아들이 계속 학교 다니게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느냐, 내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께 신고하면 당신 아들은 앞으로 문제아만 다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알아서 교육시켜라."

그리고 집으로 와서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해줬다.

"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고, 한국 부모의 뿌리를 가졌으니까 한국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한다. 미국에 살면 인종차별은 언젠가 부딪치게 될 문제야. 그 장벽을 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다. 뛰어넘든지 아니면 뚫고 나가야 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율법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생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은혜가 다스리는 삶]에서 저자는 "스위트 티"를 만드는 조리법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비유로 이야기 합니다.

스위트 티를 만드는 첫 번째 순서는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 불을 켜는 것이다. 물이 뜨겁지 않으면 차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한 개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삶이 뜨거워질 때, 그 환경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뜨거운 물에 있어야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더 쉽다! 혹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다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준비하시는 걸지도 모른다. . .

차가운 차와 달리 뜨거운 차와 설탕은 서로 완벽하게 어울린다. 뜨거운 차에 설탕을 넣고 저어만 주면 금방 녹는다. 일단 설탕이 녹아들면, 그 용액은 성질이 변한다. 다시는 차와 설탕이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물질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달콤한 임재를 드러내고자 열을 가하신다. . . 한번은 화학을 전정했다는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차도 고유한 화학구조가 있고, 설탕도 고유한 화학구조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두 요소를 섞으면, 차도 아니고 설탕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화학구조가 형성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스위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 17)

이제 우리에게 명확해 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암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개선해야, 좀 더 나아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예배에서 결심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일출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신앙과 비신앙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를 바꾸시려고 구원을 선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아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만 해서는 기쁨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해 새벽에 우리 교회 김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 받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딱 부러지는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 왔답니다.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두통약을 먹습니다. "쉬지 뭐 하려 약을 먹으면서 비올라
연습을 하는거야?" 그랬더니 "다 자기 때문이야!"

왜 자기한테 비올라를 배우라고 사줘 가지고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배운 지 1년 쯤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첼로를 시작한지 4년 쯤 되었습니다.
같이 찬송가를 연주하다 보니 비올라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런데 비올라를 배우면서 아내는 가는데 마다 가지고 다닙니다. 두통약을 먹으면서
연습합니다. 연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까지 연습을 한다면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해 보고 좋아서 시킨 것인데 그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자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모든 "율법의 조문"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율법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놔둔다든지, 혹시 아이들을 때린 흔적이
있다든지 하면 바로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형법의 일부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시한 부모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죠. 하지만
제가 두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는 동안 그 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법전에 수록된
수백 가지의 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걱정하거나 궁금해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법들보다, 법에서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더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자녀를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키우느라 전전긍긍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라! 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안쓰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겨워 살아가는 은혜의 삶,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에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 해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보다 은혜를 강조하면 제멋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죄책감과 여러분들을 얹누르는 것들에 대하여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얹누름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살아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기쁨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쁨 나는 말 할 수 없네. . ."